

## 아랍의 봄이 이 지역과 그 너머에 미친 영향과 여파

구기연 외 지음, 『아랍의 봄, 그 후 10년의 흐름』(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2)을 읽고

한새름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1980~1990년대 비교정치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 중 하나는 바로 ‘민주화’일 것이다. 하지만 아랍지역은 이 논의에서 다분히 소외되어 온 경향이 있다. 부분적으로 그 이유는 역내 독립 국가들이 형성된 시점부터 절대왕정과 군부정권을 통한 권위주의 통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인식 때문이다. 민주주의로의 전환보다는 권위주의의 공고성이 이 지역의 정치·경제·사회 동학을 설명하는 개념이자 연구주제로 주로 사용되었다. 9·11 사건 이후 민주주의가 미국의 대 중동 이니셔티브(Greater Middle East Initiative)의 핵심 축이 됨에 따라 역내 정치적 역압이 일시적으로 다소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학자들은 이 지역의 정치체제를 권위주의적 민주주의 혹은 하이브리드 민주주의(Carother, 2002)로 분류했다.

물론 예외가 존재하지만,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나 시민운동은 (포스트)마르크스적 관점에서 이 지역을 연구하는 소수의 학자에 의해 조명되는 경향을 보였다. 2000년대 튀니지의 가프사(Gafsa), 이집트의 마할라 알-쿠브라(Mahala el-Kubra) 지역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이미 발생했지만, 당시 주류 지역학이나 사회과학 학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혁명, 사회운동, 민주주의가 아랍지역 관련 주요 연구 주제로 급부상한 계기는 2011년 발생한 일명 ‘아랍의 봄’이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전개된 반정부 시위가 30년 내의 국가를 통제해 온 독재자를 무너뜨리고 자유롭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그

이전까지 정권의 탄압을 받던 야당을 집권당으로 끌어올린 사건은 과거 가시화 되지 못한 이 지역 시민사회 권력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오늘날 아랍지역의 정치지형은 단순히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혹은 지배와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분석틀로 이해하기에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리아와 리비아의 반정부운동이 내전으로 발전하고 현재까지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집트에는 다시금 군부정권이 들어서고 최근 튀니지에서도 그동안 쌓아 올린 절차적 민주주의의 업적이 무너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저항 세력이었을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히려 주도적 세력이기도 했다. 한편 현재 아랍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군부정권과 강한 리더를 지지한다는 사실이 단순히 이들이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권위주의를 받아들임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의 지지는 오랜 세월을 걸쳐 고착화된 구조적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하는 좁은 의미의 정치적 자유와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니고 있는 한계에 대한 비판과 불만, 그리고 정치·사회·경제적 권리의 확장과 사회 정의를 강조하는 두터운 민주주의(thick democracy)에 대한 요구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아랍지역에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예외주의적 시선을 무색하게 한 2011년 아랍봄기와 그 이후 복잡한 국가-사회 관계와 정치지형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랍의 봄, 그 후 10년의 흐름』은 아랍지역과 중동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유익할 책이다. 특히 이 책은 2011년 시민운동을 복기할 뿐 아니라 그 후 10여 년 간 때로는 좌초되었지만 계속되어 온 저항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내포하는 의미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해석하고 있다. 총 11명의 지역 전문가가 저자로 참여한 이 책은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부에서는 2011년 밑으로부터의 반정부 운동을 경험한 튀니지, 이집트, 시리아, 예멘, 바레인의 시위 전개과정과 그 이후 여정을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아랍의 봄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민중시위를 경험한 이라크, 레바논, 이란의 시민운동을 조명하고, 무슬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경험한 튀르키예 사례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3부에서는 이슬람주의와 국제정치라는 두 렌즈를 통해 ‘아랍의 봄’과 그 이후를 조망한다. 아래는 개인적인 해석을 더해 이 책이

다루는 사례와 핵심 주제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 I. 아랍의 봄, 혹은 혁명은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했나?

아랍봉기를 촉발시킨 계기는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발생한 두 젊은 청년의 분신 사건,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정부의 폭력적인 대응이었다. 하지만 이 불씨가 전국 차원의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고 주변 나라로 번지게 된 배경에는 가난과 소외라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경우, 1980년대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경제정책은 이전에 존재하던 국가와 사회 간의 사회계약을 흔들고 높은 청년 실업률과 빈곤 문제를 야기했다. 사회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정치적 소외 또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축적하는 데에 기여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시리아, 예멘, 바레인의 사례는 종파 간의 갈등과 정치적 억압,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의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복합적 갈등이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과정을 설명한다.

한편 튀니지 사례를 분석한 저자 엄한진이 지적하듯, 외부 세계가 보지 못했거나 ‘보지 않으려 했던’ 밑으로부터의 저항과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결정적인 순간에 혁명의 동력을 제공했다. 시민사회의 불모지라고 묘사되기도 했던 아랍 지역은 사실 끊임없는 저항, 봉기, 혁명의 장이었다. 식민세력에 대항한 독립운동에 이어 ‘빵 파동(bread riots)’으로 알려져 있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사회운동, 그리고 2011년 아랍봉기 이전인 2008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된 튀니지 가프사 광산지역 시위와 2004년 반정부 정치운동으로 발전한 이집트의 키페야(Kifeya, enough) 캠페인은 몇 가지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저항의 경험은 비록 일시적이지만 종파와 계급으로 분절되어 있는 사회를 하나로 묶는 연대를 가능하게 한 자원으로 작동하게 한 측면이 있다. 많은 학자가 지적하듯, 2011년 아랍봉기는 가시화된 리더십이나 조직이 부재한 상태에서 급속도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발전했다(Bayat, 2017). 이집트 사례를 분석한 저자 하현정은 시위대들이 독재자 퇴출이라는 목표를 공유했을 뿐 아니라 권위주의 리더십에 대한 거부, 국가 폭력에 대한 고발, 사회경제적 소외에 대한 비판

이라는 공통의 메시지를 토대로 연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한다.

## II. 권위주의의 부상, 왜?

이 책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은 권위주의의 (재)부상이다. 독립국을 건설한 이래 60여 년 동안 독재정권의 통치를 받았던 이집트는 2011년 혁명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민주 선거를 치렀고 정치적 이슬람 단체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 소속인 무함마드 모르시(Mohamed Morsi)가 이끄는 시민정부를 세운 바 있다. 하지만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딥스테이트(Deep state)’라고 불리는 군부에 의해 민주정권이 좌초되면서 이집트는 어쩌면 혁명 이전보다 더 억압적인 군부정권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시리아와 바레인에서도 2011년 야권 단체들과 시민들에 의해 조직된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지만 권위주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에 실패했다. 이 책의 2, 3, 5장은 이 국가들의 권력자들이 정권 위기를 극복하고 권위주의를 (재)공고화하는 과정을 각 국가 고유의 역사, 정치적 맥락, 그리고 외부 세력의 개입 등에 초점을 두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제3장에서 저자 김강석은 정부에 대항한 시민 시위가 종파갈등과 내전으로 진화한 시리아의 사례를 분석하며 초기 반정부 세력에 대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이념적 지지가 물리적 개입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ISIS 등장 이후 미국의 군사적 개입, 그리고 러시아의 적극적인 개입을 아사드 정권 생존의 요인으로 지목한다.

한편 튀르키예는 2011년 민주화의 물결을 피한 국가 중 하나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민주주의 희망의 상징으로 주목받았던 튀르키예가 권위주의로 회귀한 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집권 초기 에르도안의 통치는 그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개혁에 대한 전념으로 특징지어졌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터키를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권리 증진뿐 아니라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민주적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부분의 개혁들은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서 에르도안의 지도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2011년 총선에서 에르도안이 이끄는 정의개발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그의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시기에 그는 이전 임기 동안 세워진 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대신 점차적으로 권위주의로 돌아서기 시작한다. 제8장에서 튀르키예 사례를 분석한 저자 장지향은 에르도안과 귄텐의 갈등으로 상징되는 이슬람 공동체의 분열을 권위주의 회귀의 출발점이자 주요 요인으로 지적한다. 에르도안의 1인 지배체제는 이전 정의개발당을 성장시키는 데에 기여해 온 온건 이슬람 정치인들에 대한 숙청과 소외 과정에서 공고화되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또한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권위주의의 회귀 과정에 기여한 세력 중 하나였다. 특히 이집트의 경우, 반정부 시위 당시 변화의 촉매제로 기능하며 무바라크 대통령을 축출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던 청년 운동가들과 혁명세력은 2013년 모르시 정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군부의 개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스스로를 혁명 후 계속되는 빈곤, 실업, 정치적 불안정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군부가 정치의 장에 다시 등장할 수 있는 명분과 정당성을 제공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민주정권을 무너뜨리는 과정에 기여한 것이다. 물론 이들의 지지가 군부정권 회귀에 대한 적극적인 선호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그람시의 개념을 이용해 이집트 혁명 이후의 과정을 분석한 드 스멧(De Smet, 2015)의 연구는 2011년 이후 반-혁명 세력이 진화하는 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복합적 역할을 수동혁명(passive revolution)과 반혁명(counter-revolution)의 한 형태로 설명한 바 있다. 이 과정에 기여한 것은 가말 압델 나세르(Gamal Abdel Nasser) 시대부터 군부 정권과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 유지에 기여했던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 간의 대결구도, 특히 정치적 이슬람 세력에 대한 세속주의자들의 두려움이었다.

### III. 아랍의 봄이 가져온 또 다른 여파

이 책의 10장 저자 박현도에 따르면 2011년 소용돌이처럼 몰아친 정치 격변은 이슬람 전통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지하디 살라피의 발흥이다. 독재자를 축출하고 열린 민주 시위에서 튀니지와 이집트 모두 정치적 이슬람 세력인 엔나흐다(Ennahda)와 무슬림형제단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후 두 국가 모두에서 이슬람 세력은 짧게나마 전례 없는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범이슬람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지배적 정치·경제제도와 타협하는 실용주의적 모습을 보여 온 이 두 집단과 달리, 신앙의 선조와 전통을 그대로 따를 것을 강조한 이슬람 세력이 바로 살라피(Salafi) 집단이다. 저자는 이 집단을 현실세계의 권력에 순응하며 개인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정적 살라피와 때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강조하는 정치적 지하디(jihadi) 살라피로 구분하고, 이 중 지하디 살라피의 정체성을 공유했던 ISIS 테러단체 사례를 통해 아랍의 봄이 가져온 종교적 파장을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ISIS의 부상과 이들의 반인도주의적 범죄는 2011년 당시 시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던 비교적 온건한 이슬람세력이 정치경제사회적 비전을 펼쳐볼 기회를 잃게 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살라피 조직인 안사르 알 샤리아(Ansar al-Sharia)의 급진적이고 때로 폭력적인 활동은 많은 튀니지인들로 하여금 정치적 이슬람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야기했다. ISIS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집트 군부는 무슬림형제단을 비롯한 온건한 이슬람주의자들, 나아가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인, 기자, 인권 운동가들까지 테러리스트로 몰며 이들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한편, 아랍의 봄은 아랍 지역 이슬람 세력의 발흥과 쇠퇴에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국제적 여파를 동반했다. 이 책의 마지막 장 저자인 남식은 2011년부터 진행된 아랍 발 위기를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와 연계시키고, 이를 글로벌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족주의, 자국중심주의, 지역주의 현상을 통해 설명한다. 아랍 지역 권위주의의 회귀, 내전, 테러리즘의 부상은 대규모 난민을 야기했고, 이는 곧 이들 중 다수의 목적지로 상정된 유럽의 위기로 이어졌다. 역사적으로 유럽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강조, 그리고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으로 특징지어지는 자유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하지만 난민과 테러리즘 문제는 곧 유럽 내부와 외부 국경강화로 이어졌다. 현재 유럽 일각에서 나타나는 자국주의와 극단주의 움직임은 유럽 통합을 위협하고 각 국가 내 권위주의 부상에 기여

하고 있다.

#### IV. 아랍의 봄은 다시 찾아올까?

2011년 아랍의 봄을 경험한 국가 중 이집트는 더욱 강경한 권위주의 정권을 세웠고 시리아, 리비아, 예멘은 여전히 내전의 잔재를 처리하지 못한 채 정치적 불안에 휩싸여 있다. 유일하게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고 평가받던 튀니지조차 사이드 대통령이 2021년 의회활동을 동결, 2023년 의회를 해산시키는 등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권위주의의 (재)공고화 현상이 나타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약화되었다는 사실이 곧 이 지역의 민주주의 열망이 쇠퇴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11년 당시 이집트에서 혁명을 주도했던 많은 청년들과 정치인들이 해외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자신들의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지속하고 있다. 2021년 중후반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사이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보도 오늘날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다. 마니쉬 므사마하(Manish Msamah, I don't forgive) 캠페인이나 IWATCH와 같이 2011년 이후 청년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민주세력도 현재 다른 이름, 다른 형태로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안 그래도 위태로운 두 국가의 경제상황이 팬데믹과 우크라이나사태를 겪으며 악화일로로 걷게 되면서 가까운 미래에 또 한 차례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책 2부에 등장하는 이라크 티슈린 시위, 레바논 반정부 운동, 이란의 시민 불복종 사례는 2011년 당시 아랍의 봄을 경험하지 않았던 국가에서도 범상치 않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 준다. 특히 2023년 초반 정부의 매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 통제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로 나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란 학생들의 투쟁은 이 지역에서 자유를 향한 열망이 꺼지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다. 물론 오늘날 목격되고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시위가 민주운동으로, 나아가 정치적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마중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개인적으로, 2011년 종파와 계급을 넘어

선 연대가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다양한 사회·경제·정치적 요구를 연계시키는 하나의 메타 기표(Meta signifier) 혹은 ‘노달 포인트(nodal point)’(Laclau and Mouffe, 1985)로 기능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메타 기표의 수명은 길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다양한 양태의 갈등과 불신이 금새 답을 지었기 때문이다. 과연 아랍 사회는 갈등의 벽을 허물고 통합의 길, 민주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아랍의 봄, 그 후 10년의 흐름』은 이 질문에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적지 않은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23년 7월 20일 | 게재확정일: 2023년 7월 31일

## 참고문헌

- Bayat, Asef. 2017. *Revolution without Revolutionaries: Making Sense of the Arab Spring*.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Carothers, Thomas. 2002. “The End of the Transition Paradigm.” *Journal of Democracy* 13(1), 5-21.
- De Smet, Brecht. 2015. *Gramsci on Tabrir*. London: Pluto Pr.
- Laclau, Ernesto and Mouffe, Chantal. 1985.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London: Verso.